

진실없는 진실의 시대 켄 윌버 지음/김훈 옮김/김영사 펴냄/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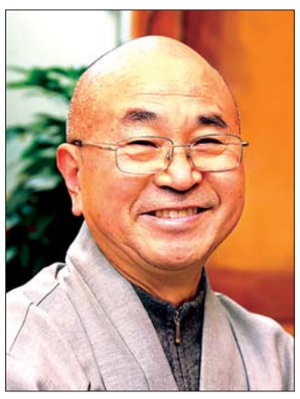
세계적인 '통합사상가' 켄 윌버가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에 퍼진 '탈진실(post-truth)'과 '가짜뉴스' 시대의 혼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켄 윌버는 인간의 의식과 신체 수준이 특정한 패턴과 발달 단계를 따른다고 보고, 각 단계를 상징적인 색(color)으로 설명한다. 가장 앞선 단계의 수준은 '녹색(green)'이며 '포용성'과 '다양성' '상대적 진리' 등을 특성으로 지닌다. 그러나 이 수준이 자기반성과 교정을 중단하고 변질되면, 우월성과 위계주의를 가지는 '붕괴된 녹색'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이 책은 '탈진실 시대'에 대해 켄 윌버가 던지는 새로운 물음이자 해법이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가운데 하나로 추앙받는 켄 윌버의 통합이론이 정치 ·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볼 수 있다.

見性과 成佛은 결국 마음 이야기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라

혜담 지음/불광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삶의 회의를 씻고 확철대오 하겠다는 원력으로 출가 수행을 시작한 혜담 스님<사진>은 은사인 광덕 스님의 지도로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수행'과도 만나고, 반야사상의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학문적 시각으로 불교 교리에 접근하는 학승의 한계를 절감하고, 귀국 후에는 더욱 조사어록에 전일해 화두참구에 몰두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조사들의 화두가 자신의 것이 되는 시간을 보내며 달마와 혜능의 선사상을 체득해 갔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마음을 다잡지 못해 갈등이 밀려오는 순간도 있었고, 깨달음이 아닌 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수행에 몰두한 나머지 뇌혈관이 터져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도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중생 제도 실천을 위해 전법교화에 매진하고, 저술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이처럼 혜담 스님이 수행자로 걸어온 지난 반세기는 실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삶 그 자체였다.

혜담 스님은 "이제 조금 눈이 열린 것 같다"라고 담담히 말한다. 역대 조사들과 은사 광덕 스님이 말한 '번뇌가 다 한 것이 부처가 아니라, 번뇌가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부처'임을 여실히 관(觀)한 스님의 고백이다.

이 책은 깨친 선승의 '할(喝)'이라기보다 묵묵히 걸어온 수행과정을 후배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회고록이자, 선승으로서 조사어록을 정리한 지침서이다.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되는 선(禪)은 인도불교와는 다른 중국적 성격을 지닌 불교 사상이다. 중국불교는 7~8세기 사이에 그 철학의 일단을 매듭짓고 새로운 불교사상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중국적 불교의 색채를 발하며 선불교를 낳았다. 따라서 선불교는 중국불교의 탄생을 의미 한다. 혜담 스님은 이것을 '달마의 심종교'의 탄생이라고 이름 붙였다. '달마의 심종교'인 선은 예기치 않게도 중국을 넘어 국제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불교서 파생했지만 새로운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선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님은 이러한 관점서 볼 때 "선은 이제 불교의 일파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인류의 지적 유산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이처럼 파격적 주장을 내세우는 근거는 조사의 사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종 이전의 불교에서는 아라한의 깨달음서 부처를 찾았다면, 선종은 오직 마음에서 부처를 찾는 데 결을 달리한다. 초기불교와는 다른 달마 대사의 심종교 기본 골격은 이입(二入)과 사행(四行)서 보다 분명해진다. 이입이란 이입(理入)

"선불교는 달마의 심종교와 대면하는 것"

선은 불교 일파가 아닌 인류의 지적 유산

과 행입(行入)이다. 본래 부처라는 이법(理法)과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한 행위로서의 수행법을 말한다. 사행은 '본래로 돌아가기 위한 네 가지 실천'을 가리킨다. 첫째는 보원행(報怨行)으로 수행하면서 겪는 장애나 역경은 전생에 지은 과보임을 알고, 괴로움을 만나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는 수행이다. 둘째는 수연행(隨緣行)으로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고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는 진실을 깨닫기 위한 수행이다. 셋째는 무소구행(無所求行)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일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이다. 넷째는 칭법행(稱法行)으로 자기 자신이 본래 청정하다는 도리를 깨닫는 수행이다. 초조 달마의 수행법에는 사념처(四念處) 등에서 말하는 부정관(不淨觀)이 없다. 본래 자성이 불성이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불교 선종 계통의 선사들은 모두 달마 대사의 심종교인 이입사행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달마 대사의 심종교는 육조혜능에 의해 선불교라는 옷을 입고 인도불교와는 결이 다른 중국불교로 정통성을 확보했다. 선종은 달마 대사가 심종교로 시작하고 혜능 대사가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책서 혜담 스님은 선불교와 기존 불교의 우위를 논하려 하거나 조사들의 뛰어남만을 부각시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고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통찰하도록 유도한다.

달마의 사상도, 그를 가장 잘 계승한 혜능도 결국 이야기하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혜능은 진여본성(眞如本性)을 강조한다. 본래 마음이란 진여본성이고, 진여본성은 불성(佛性)이다. 이 진여본성인 불성을 보면 그 자리가 그대로 해탈이다. 이는 혜능 대사의 불성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 말로, '본성을 보고 난 후에 다른 수행을 하여 열반이나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본 그 자체가 성불이고 해탈이며 열반'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선종의 교리적 해석이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자의 스승인 광덕 스님의 가르침과 달마, 혜능의 사상을 통섭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수행의 길을 응집하여 결국, 출가 당시의 물음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불교의 답이다. 무엇에도 얽힘 없는 자유자재한 삶, 그러기 위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안목을 키우는 지혜, 그것이다.

혜담 스님은 서문을 통해 스승인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부처님 가르침이 틀림없이 무상, 고, 공, 무아, 혹은 부정, 무, 무아이긴 하지만 이것은 현상에 대해서 범부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범부들의 그릇된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깨달은 궁극적 진실을 말한 게 아니다. 부정(不淨)에 대한 가르침, 고(苦)의 가르침, 무상(無常)의 가르침은 불법이며 부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진실한 깨달음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 법문에서 무엇이 진실인가?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법신(法身)이다. 번뇌가 다하고 번뇌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번뇌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라고.

▲저자 **혜담 스님**은?

1949년 경남 울산서 태어난 혜담 스님은 부산 금정산 범어사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해군군종법사 대위 전역하였고,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대품반야경에 있어서의 반야바라밀 연구〉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선우도량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 재심호계위원, 불교신문 논설위원, 불광사 주지를 역임한 그는 현재 경기도 검단산 각화사 주지,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를 맡고 있다.

한 건축학도 호기심, 의상을 만나다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행기

김승제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2만원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행기〉. 1983년 동경유학시절 이미 정해놓은 책 제목이다. 의상대사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는 비교적 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대사에 대한 초기 역사적 자료는 매우 적었다. 더욱이 의상의 활동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저마다 달라 더욱 혼란스러웠다. 저자가 매우 궁금해한 부분 즉 바로 의상이 입당해 귀국하기까지 당나라에서의 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저술은 더욱 찾을 수가 없었다. 의상은 구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당에 성공해 장안 종남산에 자리 잡은 지상사에 가서 화엄 2대 교주인 지엄을 만났다. 저자는 의상이 어떠한 행로를 통해 당으로 이동했고, 유학생활은 어떠했는지, 또한 귀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을 계속 품고 있었다.

저자는 1988년부터 광운대와 원광대 건축학과서 한국건축사를 강의했다. 이 책의 일부는 그의 강의 내용이다. 2007년부터는 청도 이공대학 국제학부 건축학과 강의를 맡아 연간 4~5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인연을 이어왔다. 때마침 저자의 연구실에 중국 유학생이 입학 하면서 중국에서의 의상대사 행적에 대한 궁금증의 해답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의상대사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기존의 옛 자료를 통해 신라와 중국에서의 행적을 추이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기존의 등주(登州) 도착설이 아닌 양주(揚州) 도착설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의상대사와의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당나라 당시 양주 대명사(大明寺)의 큰 스님인 감진(鑒眞, 688-763)이 일본 승려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75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천태종의 시조가 된다는 기록이 있다. 그후 838년 엔닌(圓仁, 794-864)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847년에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당나라에서 겪은 내용을 기록한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저술했다.

고대에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험난한 길이었음에 틀림 없다. 엔닌의 저술을 살피니 배를 타고 일본을 출발해 황해를 건너 양주에 도착한 후 다시 장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안서 귀국까지 다사다난한 당시의 상황 설명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궁금증이 한번에 걷히는 듯했다. 저자는 곧 엔닌이 다녀온 그 길이 바로 의상대사가 이미 다녀온 길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승려들의 이동에 대한 규제 제한 등이 엄격히 이루어진 점과 당시 장안으로 가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의상의 행적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나 기존의 애매모호하고 서로 다른 내용의 입당 과정을 정리하면서 의상대사의 입당 후 신라로 귀국하기까지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었다.



교토 서북쪽 도가노오산에 있는 고산사 금당

당나라 승려 이동에 대한 규제 엄격

의상, 입당후 신라 귀국까지 행적 추정

저자는 〈의상전교〉 〈부석본비〉 〈송고승전〉 〈백화도량발원문약해〉 〈해동고승전〉 〈입당구법순례행기〉(엔닌)를 비롯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 정리했다. 그리고 2016년 의상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현지답사서 얻은 확신으로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제안을 한다.

첫째, 의상은 남양반도서 배편으로 황해를 지나 항해해 양주(揚州)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의상은 1차 입당시기까지 아직 정식 수계를 받지 않은 사도승(私度僧) 단계였을 것이다. 의상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 그에 앞서 저자에게 불교의 이해는 필수였다. 저자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시작해 기본 불교교리를 공부했다. 이어 동북아시아불교사를 탐구했고, 영주 부석사와 석굴암, 낙산사 홍련암 등 불교건축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나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신국판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위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신국판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신국판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